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0 (화요일)

[오늘의 한 줄]

4거래일 만의 반등. 코스피 +4.39%(5,239.13)로 5,200선을 되찾았고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발언에 유가가 8월 말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위험자산이 일제히 올랐고, 앤트로픽은 공모가 범위(70~78달러, 가치 약 1.02조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의 '중국 스파이 의혹' 조사에 혼자 -4.3% 내렸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0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239.13 (+220.28, +4.39%). 4거래일 만의 반등이자 10월 28일(+6.63%) 이후 최대 상승. 장중 5,300.92(+5.62%)까지 올라 5,300선을 터치했고, 장 초반 양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일시 정지)가 발동했습니다. 6월 22일 연중 고점(9,114.55) 대비 -42.5%, 9월 23일 하반기 고점(7,080.92) 대비 -26.0%입니다. [계산]
- 코스닥 667.61 (+4.48%).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는 58.19(-8.98%)로 6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 삼성전자 198,900원 (+4.74%, 장중 20만1,500원 터치). SK하이닉스 121만2천원 (+6.69%, '120만 닉스' 회복, 장중 +9.33%). 삼성전기 88만2천원 (+4.63%).
- 전력기기 3종 급등: 효성중공업 174만6천원 (+12.72%), HD현대일렉트릭 394,000원 (+10.67%), LS일렉트릭 121,000원 (+8.33%).
- 상승 716개 대 하락 175개 종목. 원화: 서울 외환시장 마감 1,337.5원 (-9.6원).
- 주목할 흐름: 반등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1조3,396억원으로 이틀째 판 반면 외국인(+3,587억)과 기관(+4,980억)이 받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0131951008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3,587억원(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기관 +4,980억원(투신 +3,320억, 사모 +1,171억, 금융투자 +1,039억, 연기금등 -1,101억), 개인 -1조3,396억원, 기타법인 +4,884억원.
- 코스닥: 기관 +2,149억원, 외국인 -1,472억원, 개인 -561억원.
- 누적(9/23부터 31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9.1조원, 코스닥 약 1.56조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0131800008

■ 미국 시장 (11/9 월요일 마감)

- 전반적 반등: 다우 +2.15%(약 +1,100포인트), S&P500 +2.35%(7,549.94), 나스닥 +2.74%(25,253.14, 조정장 범위 탈출). 반도체지수(SOX) +6.86%(10,033.93).
- 개별: AMD +13.26%(구글과의 새 계약과 애널리스트 상향), 브로드컴 +8.78%, 마이크론 +6.25%(733.15달러), 샌디스크 +6.16%, 메타 +5.12%, 아마존 +2.94%(266.93달러), 팔란티어 +5.50%(169.20달러), 아이온큐 +8.34%(35.34달러), 코어위브 +5.56%(10일 3분기 실적 발표 앞둠).
- 엔비디아만 -4.27%(178.67달러): 젠슨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의혹을 받는 여성 기업인(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 미 당국은 중국 정보자산이라고 결론)과의 친밀한 관계 보도에 대해, 일요일 회사가 독립 조사를 시작하고 본인이 직원 서한에서 불륜을 인정(회사 기밀 유출은 부인). 주주 소송도 제기됐습니다(가디언). 시가총액 4.5조 달러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진행형이 됐습니다.
- 유가 급락(월요일 약 -6%)이 반등의 배경. 앞으로의 일정: 미국 10월 소비자물가(CPI)는 한국 시간 오늘 밤 10시 30분 발표, 코어위브 3분기 실적은 오늘(미국 현지) 예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알자지라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11/9/nvidia-shares-slump-amid-investigation-into-ceo-jensen-huang , 인베스토피디아 https://www.investopedia.com/stock-market-today-dow-jones-s-and-p-500-nasdaq-11092026-12244409

■ 앤트로픽 IPO: 가격표가 나왔다

- 앤트로픽이 공모가 범위를 주당 70~78달러(8억100만 주)로 제시했습니다. 조달 목표 최대 625억 달러, 기업가치 약 1.02조 달러(악시오스). 지난주 투자자들이 논의하던 1.2~1.3조 달러보다 낮고, 10월 초 거론된 2조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 수요를 확인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 다만 제출 서류가 나갔다가 번복되는 해프닝(블룸버그 'Filing Snafu')이 있었고, 로이터는 조달 규모를 최대 693억 달러로 다르게 전했습니다. 숫자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입니다.
- 상장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됩니다. 완판 여부와 상장 첫날 흐름이 AI 투자 심리의 분수령입니다.

출처: 악시오스 https://www.axios.com/2026/11/10/anthropic-ipo-terms, 블룸버그로 https://news.bloomberglaw.com/capital-markets/anthropic-seeks-to-raise-69-3-billion-via-its-ipo-reuters-says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11/9 확정): 3개월물 4.24%, 2년물 4.56%, 10년물 4.88%(+0.02%p), 30년물 5.26%. 2년-10년 금리차 +0.32%p. [계산]
- 한국 국고채 3년 3.626% (-0.008%p). 일본 국채 30년 3.863% (+0.028%p, 진행 중 값).

- 원유: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지금 시점에서 군사행동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브렌트가 89.66달러(-3%, 8월 31일 이후 최저, 화요일 오전)까지 내렸습니다. 월요일에도 약 -6% 하락. 밤 9시경 브렌트 90.72달러(-2.0%, 진행 중), WTI 85.43달러. 단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든 바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고, 협상의 구체적 문서는 아직 없습니다.
- 금 온스당 4,081달러 (-0.8%, 진행 중).
- 미국 항공유·경유(EIA 현물): 최신 확정값은 여전히 11/3 - 항공유 갤런당 4.198달러, 경유 4.823달러. 11/4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
출처: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6/nov/10/oil-prices-fall-donald-trump-iran-war-ftse-100-markets,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 네이버증권, 인베스팅닷컴

■ AI 가격 신호 3종 (11/9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빌려 쓰는 쪽'과 '반도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
1. 반도체 대 지수 괴리: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SOX) -18.00%, 나스닥 -7.31%. 괴리 -10.69%p로 전날(-15.13%p)보다 크게 좁혀졌습니다. [계산]
2. 빅4 대 취약 사업자: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MS·아마존·메타·구글) 평균 -13.47% (MS -1.9%, 아마존 -6.0%, 메타 -17.5%, 구글 -28.4%), 취약 3사(오라클·코어위브·블루아울) 평균 -43.53% (오라클 -51.7%, 코어위브 -60.8%, 블루아울 -18.1%).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8.50% (전날 -10.94%, 조정장 범위 탈출). [계산]

[판단]

- 기조: '위험 회피' 유지하되, 첫 번째 해제 조건의 초입에 들어왔는지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등의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돌아왔고, 유가 급락은 물가 부담을 줄이며, 앤트로픽이 낮은 가격표로 시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만 (1) 반등을 주도한 것이 '규제 우려 해소'가 아니라 '유가·저가매수'라는 점, (2) 젠슨 황 조사라는 새 오너 리스크, (3)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를 최대 38% 낮춘 것(2028년 실적 절벽 우려, 회사들은 'HBM 완판'을 유지한다고 반박)은 균열의 주제가 '자금조달'에서 '수요 지속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판단이 바뀌는 조건: (1) 앤트로픽 완판과 상장 첫날 공모가 위 유지, (2) 오늘 밤 미국 CPI와 코어위브 실적의 통과, (3) SOX-나스닥 괴리 -5%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연속성. 세 개가 갖춰지면 '위험 회피'를 '중립'으로 낮춥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239.13 아래일 것" - T+1(11/11, 수)과 T+5(11/17, 화)에 각각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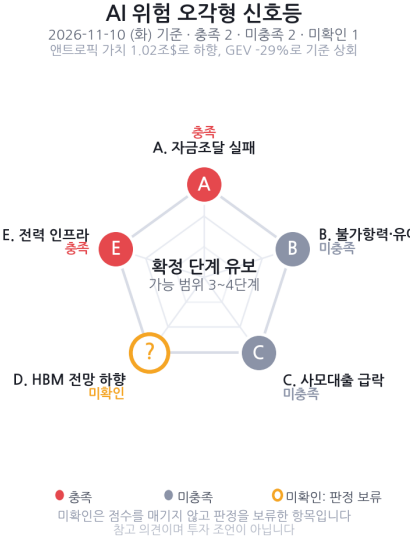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9 판단: "코스피 종가가 5,018.85 아래일 것" (T+1, 11/10 검증) → 실제 종가 5,239.13. 빗나감.

- 11/3 판단: "코스피 종가가 5,648.79 아래일 것" (T+5, 11/10 검증) → 실제 종가 5,239.13. 적중.
- 해석: 하락 국면의 연속 적중이 깨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발언 같은 정치 변수는 가격 모형이 아니라 사건 흐름으로만 잡히는 한계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검증이 끝난 최근 25건 중 적중은 14건입니다.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유지) - 기존 사례(은행의 AI 대출 기피, ING 매각, 하이일드 폐쇄, OpenAI 조달 축소 등)가 유지되는 가운데, 앤트로픽이 목표 가치를 2조에서 1.02조 달러로 낮춰 시장을 여는 것 자체가 조달 환경의 악화를 보여줍니다. 단 '낮춰서라도 여는' 것은 시장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 신규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9/24 오라클 건은 30일 창 밖).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 APO -14.9%, KKR -14.9%, BX -16.9% (11/9 종가). 반등으로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 회사 공시 하향은 없고 삼성·SK는 '완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가 두 회사 목표가를 최대 38% 하향(2028년 실적 절벽 우려)했고, 젠슨 황 조사로 장기 공급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한국일보)가 나왔습니다. 브로커 전망은 공시가 아니므로 미충족이 아니라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V·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 GE버노바는 -29.4%로 기준 위로 복귀했으나 HD현대일렉트릭 -71.1%, 효성중공업 -59.7%, LS일렉트릭 -60.2% 3종이 기준 아래입니다(한국 3종 11/10 마감, GEV 11/9 마감 기준).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A와 E 2개('3단계' 해당).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